

간편해서 좋지만... 네이버페이 '보안 허술' 논란

일회성 보안 절차로 인증 끝... 보안 시스템 최하위 수준 해당 암호 유출되더라도 누구나 결제과정 진입 이커머스 홈페이지 정보 남아 부정 사용될 우려 높아

네이버페이가 간단한 인증 절차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등 허술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의 대표 결제 수단인 '네이버페이머니 충전결제'의 간편 결제를 위해 간소화된 보안 인증 절차가 오히려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머니 충전결제'는 계정에 연결된 계좌로부터 출금할 금액을 선택 후 네이버페이머니로 전환해 충전하는 방식이다. 결제 시 연동된 계좌로부터 최소한의 보안 인증 절차만 거쳐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방식을 사용

하면 카드·계좌 등 정보를 결제할 때마다 입력할 필요 없이 시스템에 결제 수단 이력이 저장돼 일회 등록만으로 편리한 상품 결제가 가능하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는 포인트 또는 현금을 전환해 충전하는 네이버페이머니 방식으로 네이버 내 쇼핑(커머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한번 정보가 등록되면 보안 인증 수단은 비밀번호 입력이라는 단 하나의 절차 뿐이라는 것이다. 여섯 자리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되는 구조로 보안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회성 보안 절차로 인증이 완료되는 비밀번호 입력 과정이 최하위 수준의 보안 장치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약관에서 고객이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의무 사항

으로 명시한 바 있다. 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 개인정보보호 의무도 기재했다. 그러면서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계좌·카드정보 등 개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취합해 간편결제 명목으로 시스템에 저장했다.

이는 해당 암호가 유출되면 누구나 쉽게 보안 절차를 통해 결제 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개인 정보 노출 시 연동 계좌로부터 무방비한 출금이 이뤄지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네이버페이는 이커머스 등 다른 사이트에서도 공식 간편결제 수단으로 등록돼 있어 더욱 취약한 보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이커머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쇼핑 후 결제 방식을 네이버페이로 선택하면 결제를 위해 네이버페이로 넘어오는 식이다. 결제를 위해 별도의 두 사이트에서 정보가 공유된다.

이는 배송정보와 주문 상품정보 및 결제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서 이동한 페이지로 연동돼 주문이 이어지는 방식이므로 입력된 정보는 기록될 수 있다. 이에 결제를 완료하지 않았지만 입력 정보가 그대로 남아 해당 정보로 결제가 된 부정 결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정 결제 피해를 경험한 고객은 "네이버와 연동해 여행사에 신규 회원등록하고 예약을 만들다 중단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가입 후 미사용 계정인데 네이버페이 명의로 결제한 적 없는 금액이 출금됐다"며 "물론 피해에 책임이 있는 여행사를 통해 환불받았지만 여행사와 네이버페이 모두에서 가지고 있던 개인 정보가 허술하게 풀리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던 만큼 네이버페이 등에 대해서도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해외사업자 등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결제 시 보안 인증 절차 간소화에 따른 피해 발생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회신 없었다.

이유경 기자 heeyk@skyedaily.com

한류 수출 142억 달러... K소비재 수출 속도

'한류 연계 수출 간담회' 개최 산업부, 박람회 확대 등 지원

양한 분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부와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류로 인한 수출액은 142억 달러가량으로 집계돼 2020년보다 22.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비재 수출도 지난해 983억 달러로 2020년(647억 달러) 대비 50% 이상 증가해 전체 수출액의 약 16%를 차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케이타운포유 외에도 한류를 실제 수출 성과와 연결하는데 성공한 온오프라인 혁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같은 한류 수출의 증가세에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경우 국내 중소상공인 제품에 물류 혁신을 더해 대만 소비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런 기업들과 다양한 혁신수출 모델을 소개하고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美 뉴욕시 내달 맨하튼 '웬비어 길' 청원 검토 예정

'주유엔 北대표부 입주 건물' 앞거리 반인권 피해 상징 될 수도

이런 교통위 회의에 이소연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가 출석을 요청받았다. 이 대표는 "아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탈북민 엄마로서 웬비어 유가족과 아픔을 공유한다"며 "내달 4일 회의 때 화상으로 참석해 웬비어 길 지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웬비어 길 지정안 추진이 2019년 뉴욕시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 주도로 추진됐으나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뉴코리아여성연합이 지지 서명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벌인다.

한편 이 대표는 다큐 영화 '비온드 유토피아' 출연자이기도 하다. 북한에 남은 아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 처지다. '비온드 유토피아'는 지난달 미 TV예술과학아카데미가 발표한 제76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에 올랐다. 두 탈북 가족의 탈출과 강제 복송, 이들을 구출하려는 한국인 목사 김보 씨의 노력, 지상낙원이라고 믿고 자란 조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사연, 특히 아들을 구출하려는 엄마 등 드라마틱한 요소가 가득하다. 1월 독립영화의 아카

미국 뉴욕 맨해튼의 주유엔 북한대표부(디플로맷 센터 건물 내) 앞길을 '웬비어 길'로 지정해달라는 북한인권단체의 청원에 뉴욕시 관련 기구가 공식 논의 작업에 들어갔다. 27일(현지시간) 뉴욕시에 따르면 맨해튼 커뮤니티보드(주민자치회) 6지구 교통위원회는 내달 4일 회의를 열어 2번 애비뉴와 44번가 교차 사거리의 남동쪽 코너를 오토 웬비어 추모의 길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에 검토를 진행한다.

2016년 1월 당시 버지니아주립대 3학년 생 웬비어는 관광차 방문한 북한 평양의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선전물(김씨 부자 포스터)을 허락 없이 챙겼다가 체포된 후 그해 3월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2017년 6월 억류 17개월 만에 훈수상태로 풀려났으나 귀국한 지 몇새 만에 숨졌다. 웬비어 부모의 집념 어린 노력 등에 힘입어 이른바 웬비어법인 2022년 미 의회를 통과해 전 세계 북한 자

산 동결·처분할 수 있게 됐다.


6월17일 북한인권단체 뉴코리아여성연합이 북한대표부 앞길에서 웬비어 사망 7주기 추모 집회를 열었으며, 이미 유가족과 협의해 주유엔 북한대표부 앞길을 웬비어길로 지정해 달라는 서한을 뉴욕시장 및 뉴욕시 의원 60여 명에게 보낸 상태였다. 거리명 지정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먼저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커뮤니티보드 교통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뉴욕 외교공관 인근엔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인사 이름을 붙인 선례들이 있다. 맨해튼 3번 애비뉴 67번가 코너는 소련의 핵물리학자 출신 반체제인사 안드레이 사하로프와 인권운동가였던 부인 엘레나 보네르의 이름을 따 '사하로프-보네르 코너'로 명명됐다. 구 소련대표부가 있던 곳이다. 중국 영상과 소재지인 12번 애비뉴 42번가는 텐안만 시위 희생자들을 기려 '텐안만 광장 코너'로 이름 붙여졌다.

6월 미국 뉴욕 주유엔 북한대표부 건물(디플로맷 센터) 앞에서 웬비어 추모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웬비어 길' 지정 청원을 주도한 이소연 뉴코리아여성연합대표가 출연한 다큐멘터리 '비온드 유토피아' 포스터. 연합뉴스

데미상으로 불리는 선댄스영화제 관객상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으며 미 공영 PBS를 통해 전역에 방영되기도 했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마음놓고 부모가 되어도 좋은 대한민국 행복을 완성하는 일터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